

# 광주FC 박기동 '태극마크' 보인다



데뷔전 2골... 프로축구 1라운드 MVP·베스트 11 선정  
선수단은 창단 첫 게임서 총점 9.4로 베스트팀 등극

데뷔 무대에서 2골을 몰아넣은 광주 FC의 박기동이 1라운드 'MVP'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개막전에서 3-2로 대구 FC를 제압한 광주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라운드 베스트팀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광주 공격수 박기동을 K리그 1라운드 MVP로 선정했다. 박기동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며 2관왕이 됐다.

박기동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린 대구와의 K리그 데뷔전에서 2골을 뽑아내는 활약을 선보이며 개막전 최고 스트리커가 됐다.

안정된 수비 속에 공격 지원에도 나선 광주 수비수 혜재원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광주는 첫 무대에서 두 명의 베스트 선수를 배출했다.

주장 박기동의 맹공으로 개막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광주는 총점 9.4점으로 1라운드 베스트팀에 등극하며 경쟁사를 맞았다.

데뷔와 함께 MVP에 오른 박기동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능력을 보이면서 광주의 질주를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페조의 출발을 한 광주는 8일 수원과의 두 번째 무대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1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달콤한 휴식을 취했던 선수단은 8일 오전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모여 스파이크끈을 다시 맸다. 최만희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다. 시민들에게 승리를 안겨 드리고 베스트팀에도 선정되는 등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9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인천대와 연습경기를 갖고 선수단 전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빠르고 강한 공격진을 보유한 수원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비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수원전의 전반적인 포메이션은 지난 1라운드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 감독은 "다음 상대가 막강한 수원이지만 젊은 선수들답게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에 큰 변화는 두지 않을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박기동(오른쪽)이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문전으로 쇄도하고 있다. 박기동은 이날 역전 골을 포함 두 골을 성공시키며 1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김진수기자 jeans@

고교축구 강호 금호고·광양제철고

## 챌린지리그 우승 노린다

12일 개막… 6개월 열전 돌입

금호고, 광양제철고 등 프로축구 K리그 구단 산하 18세 이하(U-18) 팀들이 참가하는 '2011 SBS 고교 클럽 챌린지리그'가 오는 12일 개막해 6개월여의 열전에 들어간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프로구단이 주관하는 챌린지리그는 클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망주를 발굴하려고 2008년 첫 대회를 열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프로 16개 구단 중 강원FC와 상주 상무를 제외한 광주FC, 전남 드래곤즈 등 14개 팀의 U-18 클럽이 참가하며 A, B조로 나뉘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간 팀당 19경기씩, 총 133경기를 치른다.

A조에는 수도권과 전북, 제주 지역 팀들이 참가하는 데 지난해 웹피언 매단고(수원 삼성)와 동북고(FC서울), 풍생고(성남 일화), 대건고(인천 유나이티드), 영생고(전북 현대), 서귀포고(제주 유나이티드), 충남기계

공고(대전 시티즌) 등 7개 팀이 함께 뛰었다.

전남과 영남 팀으로 짜인 B조에서는 현대고(울산 현대)와 금호고(광주FC), 동래고(부산 아이파크), 진주고(경남FC), 현풍고(대구FC), 광양제철고(전남 드래곤즈), 포항제철공고(포항 스틸러스) 등 7개 팀이 경쟁한다.

경기는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진행되고 당일 오후 2시(6~8월 혹서기는 오후 4시)에 킥오프한다.

승점-승자승(상대팀 간 득실차)-득실차-페어플레이-추첨 순으로 조별리그 순위를 가리고 10월 1일과 2일 A조와 B조의 같은 순위팀끼리 맞붙는 최종 순위 결정전을 벌인다.

12일 개막전에서는 동래고-금호고, 광양제철고-현풍고, 동북고-풍생고, 영생고-대간고, 현대고-진주고가 맞붙고, 조별리그 1~3위까지 6개 팀은 11월 열리는 주말리그 왕중왕전(64강)에 나간다. /연합뉴스

## 평가전 앞둔 조광래호 해외파 누굴 짐 할까

박주영·기성용·이청용 호출

구자철·차두리·손흥민 제외

J리거 이근호·김보경은 실험

조광래(57)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오는 25일 온두라스, 29일 몬테네그로와의 국내 평가전에 참가할 해외파 선수 명단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감독은 8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점심을 먹으면서 평가전에 부를 해외파 선수들의 윤곽을 그렸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 보름 전인 오는 10월까지 소속 구단에 소집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 감독은 그전에 불러모를 해외파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대표팀의 주축인 공격수 박주영(26·AS모나코)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청용(23·볼턴), 기성용(23·셀틱) 등은 예상대로 오는 23일 파주 NFC



〈박주영〉

〈기성용〉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소집에 참가할 전망이다.

조 감독은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 3명 모두 부를 예정이고 선수 자신이 더 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터키와의 원정 평가전에 참가했던 유럽과 선수 중 소속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미드필더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 공격수 손흥민(19·함부르크), 채널 종인 수비수 차두리(31·셀틱)는 제외된다.

반면 공격수 남태희(20·발랑시엔)를

이번 평가전에 부를지를 놓고는 막판 고민 중이다.

조 감독은 "태희는 소속팀에서 뛰고 있어서 뽑을지를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남태희는 지난 6일 박주영 소속팀인 모나코와의 경기 때 후반 27분 교체 투입돼 과감한 중거리슛을 날리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게 조 감독의 복안이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이 아깝게 좌절됐던 공격수 이근호(26·감바 오사카)와 J리그 개막전에서 도움 해트트리크를 작성했던 공격수 조영철(22·알비렉스 니가타), 미드필더 김보경(22·세레소 오사카), 수비수 김영권(21·오미야아이언즈)이 유력한 차출 후보들이다.

조 감독은 K리거들에 대해서는 "13일 경기까지 지켜보고 소집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양쪽 측면 요원들을 집중적 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소연·여민지 연속골

키프로스컵 러 꺾고 조 1위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11 키프로스컵 여자축구대회에서 지소연(고베아이낙)과 여민지(한안대산고)의 연속골로 러시아를 꺾고 조 1위를 차지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8일 오전(한국시간) 키프로스 파랄림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C조 조별리그 러시아와의 3차전에서 전반 5분 지소연의 선제골과 후반 33분 여민지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지소연은 유영아(부산상무)가 끌려준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나서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균형을 무너뜨렸고, 여민지는 후반 32분 동점골을 내줘 1-1로 맞선 지 1분 만에 권하늘(부산상무)의 도움으로 결승골을 뽑았다.

총 12팀이 4팀씩 3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이 대회는 공동 주최국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가 포함된 A, B조 팀만 우승을 다투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국은 C조 1위를 차지했지만, A조 3위 잉글랜드와 9일 5-6위 결정전을 치르고 11일 오후 귀국한다. /연합뉴스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특전 1급비즈니스관광호텔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GRAND OPEN  
웨딩특가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 ①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 ② 예식장 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
- ③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 ④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 ⑤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 ⑥ 차별화된 호텔식 100여개 즉석 뷔페
- ⑦ 혼주·가족 전용 VIP룸 이용
- ⑧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허니문 룸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 ⑨ 웨딩제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비와 페백수도비서비스)
- ⑩ 대형예식장과 동일한 뷔페식비로 단독 연회장을 사용 (3만원~10,11,12월 / 2만8천원~1,2,6,9월 / 2만6천원~7,8월)
- ⑪ 이브닝예식 빅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돌·회갑·행사

호텔식 뷔페 80가지 2만8천원  
(50석 ~ 500석 대·소 행사 가능)

객실  
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당식, 한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된 7만원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 10% 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 할인 혜택)
- 35만원 상당의 혜택 3종주
- 25만원 상당의 에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룸서비스
- 하객 400명 이상 보정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1F 아트홀(150석)  
5F 벨리지오홀(180석)

SCREEN GOLF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 12시 티업까지 10,000원)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룸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원손타석 (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 (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메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 (무료)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 일 제외)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 짹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